

CJ나눔재단,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꿈 키운다

420명 대상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CJ나눔재단은 6월 8일까지 전국 공부방 초·중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CJ도너스캠프의 대표적인 꿈키움 프로그램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를 진행한다. 19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가 지난 2013년 시작한 '창의학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잠재된 창의력을 개발하고, 꿈과 인성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CJ그룹의 문화·식품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직업과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하고 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올해는 음악·영화·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창의학교 상반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된 CJ도너스캠프 대학생 봉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5개 공부방을 찾아 매주 2.5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음악분수는 창작곡 만들기과 공연 기획을 통해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표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스테이지 음악분수. /CJ그룹

현하고 ▲영화분수는 시나리오 창작부터 연출, 연기, 촬영 등을 모두 직접 하며 영화를 제작하고 ▲디자인분수는 집과 마을을 디자인하고 이를 연결해 도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 사회적 공동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2주간의 교육이 끝난 뒤에는 참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선보이는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스테이지'로 상반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첫번째 줄 왼쪽 다섯번째)이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사진 첫번째 줄 왼쪽 여섯번째),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사진 첫번째 줄 왼쪽 일곱번째) 및 '1Q Agile Lab 6기' 참여 스타트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KEB하나은행은 1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스타트업 13곳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Q 애질 랩(Agile Lab) 6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1Q Agile Lab'은 KEB하나은행이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디지털 혁신을 일으키는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도록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1Q Agile Lab'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스타트업과 동반성장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SKT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 '어느 해녀의 그리움'

한국광고주협회는 '제26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TV 부문 대상에 SK텔레콤의 광고 '어느 해녀의 그리움'(SM C&C 제작)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더는 물질을 할 수 없는 해녀 할머니에게 5G 이동통신 기술을 통해 바닷속 추억을 선물하는 내용의 광고가 진한 감

동을 준 한 편의 영화 같았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부문 대상은 한화이글스의 '세상에 없던 말'(한컴 제작)이 차지했다.

이 광고는 야구를 즐기기가 어려운 농인(聾人) 야구선수들이 수어(手語) 전문가와 합심해 야구 수어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담아 감동을 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올해 행사에서는 '딸의 인사'(동아제약 박카스), 'I·SE OUL·U와 함께하는 수소 전기 하우스'(현대자동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은 1998년 만들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광고를 대상으로 온라인 추천, 소비자 심사단 100명의 현장심사, 전문심사단 최종심사 등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점[神占] 운세 3월 20일 (음 2월 4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o.com) 060-800-8877

<p>쥐</p> <p>60년생 즐거움이 귀하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72년생 좋은 벗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 합니다. 84년생 집안이 화락하고 자손에게 경사가 있겠습니다. 96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 하세요.</p>	<p>말</p> <p>54년생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 할 것입니다. 66년생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세요. 78년생 가정은 평안하고 화목합니다. 90년생 집안에 큰 경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p>
<p>소</p> <p>61년생 사랑싸움에는 이해와 양보가 답 입니다. 73년생 구설수만 조심하면 관찮은 하루 입니다. 85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를 것 입니다. 97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됩니다.</p>	<p>산양</p> <p>55년생 즐거워 따르게 되는 운기 입니다. 67년생 뿔뿔의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79년생 모든 일에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91년생 성취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시기입니다.</p>
<p>호랑이</p> <p>50년생 사업방면에 호소식이 들려옵니다. 62년생 자신이 행한 일을 스스로 처리 하세요. 74년생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면 화가 됩니다. 86년생 질투를 받아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p>	<p>원숭이</p> <p>56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때입니다. 68년생 현재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80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지 마세요. 92년생 운이 약해지니 미리 대비하세요.</p>
<p>토끼</p> <p>51년생 부부간에는 주거가 불안해 집니다. 63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75년생 부모와 자식간에 말다툼이 생깁니다. 87년생 여성은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p>	<p>닭</p> <p>57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9년생 귀하가 지금 추진하는 일은 잘 됩니다. 81년생 분열이 오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93년생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p>
<p>뱀</p> <p>52년생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64년생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76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세요. 88년생 이미 건너 해결된 형국입니다.</p>	<p>개</p> <p>58년생 신분에 걸 맞는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70년생 거주문제로 마음고생이 따릅니다. 82년생 빠져 나아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94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p>
<p>범</p> <p>53년생 기쁜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65년생 과욕은 크게 손실을 불러오기 있습니다. 77년생 발전을 약속 받는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89년생 어려운 시기는 지속되지 않습니다.</p>	<p>돼지</p> <p>59년생 남과의 조화가 나쁘고 고독합니다. 71년생 인장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됩니다. 83년생 장거리 여행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95년생 예술적인 분야가 적성에 맞습니다.</p>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4	2		
	5			3	
7	6	8		9	
1	3		2		4
		6			
7	9		6		8
	5	3	4		8
	4			9	
2		7	9		

	6				5
1	5			9	4
2	1			8	9
	3	2	4		7
			3		
4		1	6		7
3		5	8		6
	9		7		2

스도쿠 정답

8	9	5	6	8	9	1	2	7
2	7	6	8	9	1	5	3	4
9	8	1	7	2	3	4	5	6
8	9	5	7	1	6	2	3	4
6	1	2	4	9	7	8	5	3
7	5	2	1	6	8	9	4	7
1	6	7	8	5	9	2	1	4
2	9	4	1	2	6	5	8	7
5	1	8	7	3	4	9	6	2
1	2	5	4	7	8	6	9	3
9	6	7	8	2	5	1	3	4
1	8	9	6	1	2	5	7	3
2	7	1	6	4	8	9	3	5
5	1	9	7	1	2	6	4	8
6	8	5	9	1	1	7	2	3
7	9	6	1	8	4	5	2	1
8	5	2	1	7	6	9	1	4
4	1	2	5	9	7	8	6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어록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무한한 도전이며 칠전팔기의 인생역정과도 다르지 않다. 인생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 했듯이 말이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우주의 기운에서 응원을 보내게 된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여러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선수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었다. 모든 경기를 보게 된 것은 아니었는데 마침 지켜보게 된 스케이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고다리아라는 일본 선수였다. 선수로서 적은 나이가 아니었던 그녀는 전문 직업 스포츠인도 아니었고 그저 스케이트가 좋아서 타다보니 재능 또한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 네델란드로 유학을 가서는 마구간을 개조한 건물에서 숙식하며 연습을 했는데 한 때, 대학 졸업 후 잠시 근무했던 병원의 이사장은 그녀의 의지와 재능을 믿어 한 때 자신의 병원 직원이었다 그녀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만고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 오지 않은 그녀의 시도를 무모하게 보며 뒤에서 비웃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4년 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녀의 금메달 수확 후 소감도 소박했지만 자신의 경기 후, 응원 나온 일본인 관중들에게 다른 선수의 경기가 남아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모습으로서 입에 손을 올리며 '썬! 하는 당부를 보며 그녀의 평소 배려 깊은 마음씀씀이를 보는듯했다. 해보지도 않고서 현실적 어려움과 장애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 없다. 언젠가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불굴의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떠오른다. 평소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주저하는 회사 간부들을 질책할 때 주로 썼던 말로써 "이봐, 해봐?" 라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주문과도 같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마음부터 내는 부정적 사고는 바로 실패로 가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이 유명한 어록은 스스로에게 주는 자기 긍정의 무한한 힘이며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못할것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 우리 자신들을 경책해준다. 우리는 진정 해보거나 했는가?